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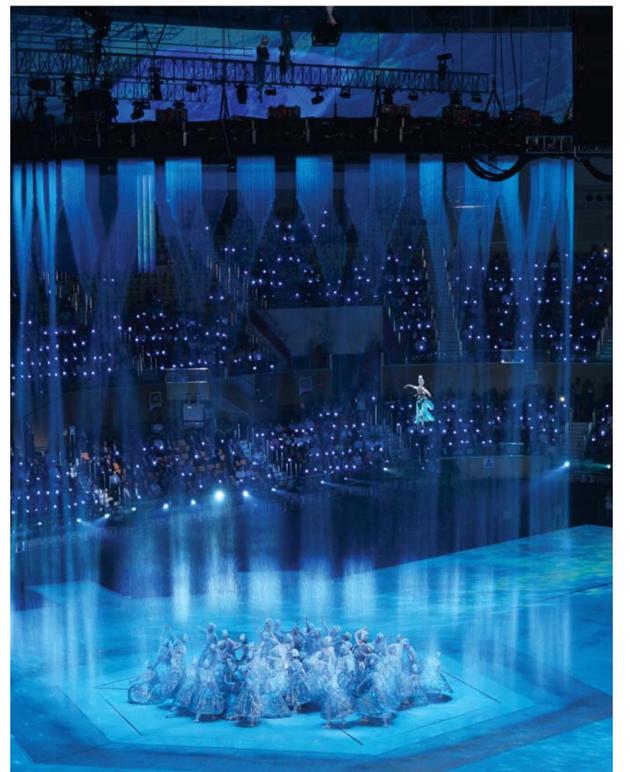
빛고을 생명과 평화의 물,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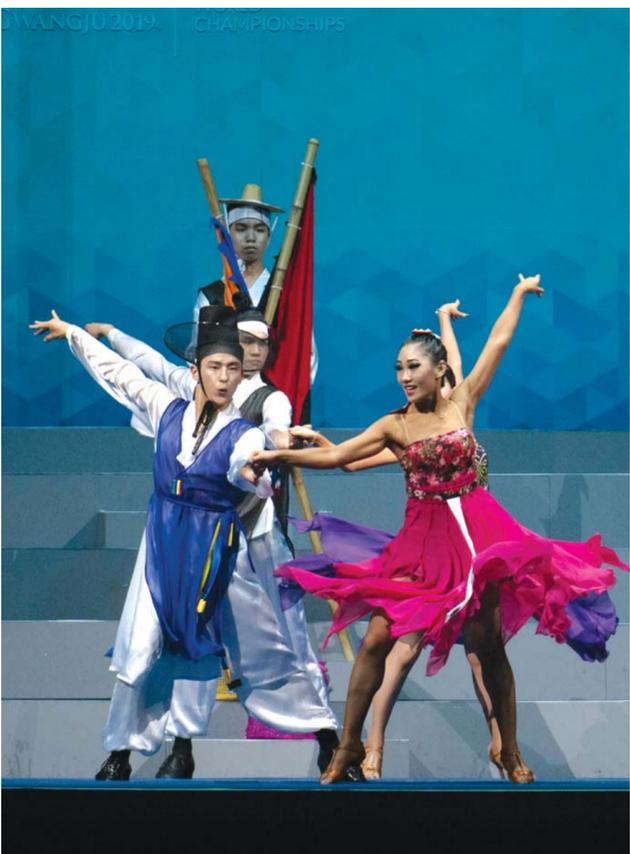
한국 전통 문화공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화려한 조명과 군무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서 모인 100개국 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밤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수영대회 전야제에서 '물 합수식'이 진행되고 있다. 물 합수식은 각국의 물이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합쳐져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빛의 고장에 내려앉은 평화의 빛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 12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생명과 평화를 뜻하는 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참가국 국기 입장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이 12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참가국 국기 기수단의 참석에 이어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다.